

<<교육실습 후기>>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 수학과 교육 실습생

1.하노이로 떠나기 전

2016년 02월 어느 겨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하고 있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나에게 걸려온 전화 한통이 나의 5월을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 내가 살게 될 미래에 대한 자세도 바꾸어 놓았다.

나는 원래 내 모교인 서울보성여자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려고 했다. 내가 1학년 때 과선배가 해외교생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너무 오래 전이었기 때문인지 해외 교생에 대하여 잊고 있었고, 당연히 모교로 교생실습을 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겨울방학에 학교 행정실로부터 연락이 왔고, 나는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지원했다. 친구들과 함께 교육학 공부를 하던 중 5월에 하노이로 가게 되었다는 합격소식을 들었고, 나의 설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수학교육과를 복수전공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학교생으로서, 영어영문학과를 복전하고 있는 다른 친구는 영어교생으로서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 가게 되었고, 우리는 작년에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온 선배들로부터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교육받았다. 그렇게 중간고사가 지나갔고 출국날이 다가왔다.

2.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에 도착한 후

(1)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는....

5월 2일, 나는 하노이에 도착했다. 5월 2, 3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학교로 첫 출근을 한 날은 5월 4일이었다. 5월 2일에 학교 선생님께서 교생선생님들을 픽업하러 공항까지 오셨고,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때 알게 된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가 한국학교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전교생이 학교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일까? 한국학교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었다. 때문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또한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정확히 15분 뒤에 집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종례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우리 반으로 오셨던 교생선생님과 방과 후에 텅 빈 교실에서 수다를 떨면서 친해졌었다. 때문에 내가 교생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과 친해질 때,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분만에 셔틀버스를 타야하는 학생들을 친해지자는 이유로 붙잡아 놓을 수는 없었다. 때문에 조회, 종례,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갔고, 학생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는 초중고가 모두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물리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계가 정확히 분리 되어 있다. 하지만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두 한 건물을 함께 쓰기 때문에 등교를 함께하고,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반 학생들이 참여하던 멘토멘티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이 화요일, 목요일마다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고등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초중고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한국학교와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5월 4일부터 학교로 출근하였다.



(2)교생실습 첫날

교생 실습 첫날은 나에게 있어서 5월 한 달 중 가장 설레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다. 중학교 때부터 내 꿈은 교사였고 그날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교직생활을 경험해보게 되는 날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이 바로 교생 첫 번째 날, 즉 2016년 5월 4일 이었던 셈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게 될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까,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라는 수많은 물음을 안고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 5월 4일, 나는 내가 담당하게 될 10학년 1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10-1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10학년 1반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누구지?’라는 표정을 짓다가 우리 반 교생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격하게 환영해 주던 학생들의 모습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였고 평소에 사람들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하는 나였기에 담임 선생님께 학급 사진표를 받아 시간이 날 때 틈틈이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외웠다. 학생들과의 인사를 마친 후, 우리 교생들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연수를 받았다. 교무부, 연구부, 국제부 등 학교에 있는 여러 부서 선생님들께서 각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관하여 교육을 해주셨고, 이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3)교생실습의 시작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는 5월 행사가 참 많았다. ‘아카데미 페스티벌’이라 해서 과목별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영어, 베트남어 스피치 대회,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진 대회, 백일장 등 많은 행사가 있었으며 댄스부 학생들의 공연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나와 다른 교생선생님들은 행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담당 선생님을 도와드렸다. 여러 행사가 있었던 덕분에 나를 포함한 교생선생님들은 베트남 전통의상 ‘아오자이’를 입을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와 같은 행사는 주로 5월 둘째 주에 많았기에 수업시간이 빠지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수업 참관을 둘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다.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는 총 여섯 분의 수학 선생님이 계셨고 여섯 분 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면서 배워야 할 점, 느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다. 2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는 몰랐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참관은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5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대학교 1,2학년 때 여러 멘토링을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부담감을 느끼거나 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크나큰 착각이었다. 멘토링을 할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나를 감쌌고,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욕에 불타 수업준비를 했던 것 같다. 나는 총 3개의 반에서 수업을 했었다. 수학 과목의 특성상, 한час의 수업을 준비하면 동일한 내용을 여러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나의 담당 선생님께서는 내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업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셨고, 그로인해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을 토대로 다음 수업 준비를 하였고, 수업을 마무리 할 때마다 이전 수업보다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내 수업에 대하여 자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신 덕분에 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발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판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던 것 같다. 물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내가 배웠던 것은 교사가 갖춰야 할 여러 자세 중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매우 의미 있었고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바도 매우 크다. 대학생이 된 후, 용돈을 벌기 위해 고등학생 과외를 한 적이 매우 많았다. 내가 했던

과외는 거의 대부분이 일대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는 일대일 학습지도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35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했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가며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했다. 수업 초반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교과내용에 집중하느라 칠판만 바라보며 수업을 했었지만, 여러 번 수업을 진행할수록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학생들의 눈을 통해 학생들이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이해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 수업을 듣는 초롱초롱한 학생들의 눈빛은 나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다. 하노이에서 한번 몸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날 따라 몸에서 열이 났고 매우 어지러웠기 때문에 교생실에서 계속 엎드려있었다. 하지만 그날 내가 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과, 내가 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힘이 났고, 몸살로 인한 아픔을 싹 잊은 채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 반 학생들은 총 36명으로서 참 순수하고 마음씨가 좋은 아이들이었다. 내가 교생 첫 주에 쭈뼛쭈뼛거리며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보니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학생들 덕분에 나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반 학생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일까? 나는 학생들과 나눈 대화를 잊어버릴 것 같다는 우려가 들었고, 작은 노트에 우리 반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 적어놓았다. 학생들과 문과, 이과에 대한 이야기,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누면서 학생 한명, 한명이 어떤 학생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가지고 10학년 1반 교실로 가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학생들과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생 마지막 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사실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학생들이 나에게 준 편지와 선물은 나에게 매우 의미가 컸고, 아마 평생 간직하게 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시

만나기 쉽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4)주말여행

나는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른 교생 선생님보다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교생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평일에는 학교에서 일을 했고, 주말에는 교생선생님들끼리 함께 베트남 주요도시 관광을 다녀올 수 있었다. 수업준비로 바빴던 3주, 4주차 주말에는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지만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1,2주차 주말에는 다낭, 하롱베이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고 이때 다른 교생선생님들과 함께한 추억도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에서 교생을 마친 후

하노이 한국 국제 학교에서 보낸 한 달은 내가 가진 교사라는 꿈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보다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났던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졌기에 훗날 꼭 교사가 될 것이라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너무나도 자상하신 선생님들과 마음이 따뜻한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교육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단순히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교육실습을 다녀온 후로는 앞으로 내가 어떤 교사가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나는 여전히 '좋은 교사'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보아야 할 테지만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보람찬 직업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 꿈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에서 보낸 1달이라는 시간을 내 가슴속에 간직하며 교사라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